

2020년 4월 12일

주님 부활 대축일 (가해)

제2087호



무덤으로 달려가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  
위제스 뷔르낭(1850~1921), 유화, 1989, 오르세 미술관, 파리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요한 20,3)

## ■ 미사

- 제 1독서: 사도 10,34-37-43
- 화답송: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제 2독서: 콜로 3,1-4
-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었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 복음: 요한 20,1-9

## •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 오전 7:00

오전 9:00(영어미사)

오전 11:00(교중미사)

• 평일미사 : 화·수·목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전 10:00

•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9:00

## 성삼 소식

-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LA 교구 지침
  - 4월 19일(주일)까지 LA교구의 모든 미사 중지하며  
성당 건물 출입을 금합니다.
  - 사무실 전화 문의시간  
(수~금: 오전9:00~오후5:00 / 토: 오후1:00~7:00)  
(주 일: 오전8:00~12:00)

| 우리들의 정성 (2020. 4. 5 현재)                                  |          |
|----------------------------------------------------------|----------|
| 교무금                                                      | 4,500.00 |
| 주일 헌금                                                    | 0.00     |
| 감사 헌금                                                    | 300.00   |
| 성소 후원금                                                   | 18.00    |
| 교무금(9명)<br>김천애, 박옥경, 이기광, 심재경, 한상윤, 김광신<br>김윤자, 고국상, 김영찬 |          |
| 감사헌금: 김천애, 이기광, 김광신,                                     |          |
| 성소후원: (4명)                                               |          |

##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와 극복을 위한 기도

- 합동 묵주 고리기도 매일 저녁 8:00

- 기간: 4월 6일(월) ~ 30일(목)

※ 사도신경, 묵주기도, 성모송 10번

| 요일  | 신비 | 구역별                                                                |
|-----|----|--------------------------------------------------------------------|
| 월요일 | 환희 | 1구역: 신비 1단<br>2구역: 신비 2단<br>3구역: 신비 3단<br>4구역: 신비 4단<br>5구역: 신비 5단 |
| 화요일 | 고통 |                                                                    |
| 수요일 | 영광 |                                                                    |
| 목요일 | 빛  |                                                                    |
| 금요일 | 고통 |                                                                    |
| 토요일 | 환희 | 5구역: 신비 5단                                                         |
| 일요일 | 영광 |                                                                    |

## ☞ 부활 계란 만들기 콘테스트

- 작품제출: 1가족 1작품(작품사진 혹은 작품과 가족사진)
- 제출마감: 4월 19일(주일) 오후 5시까지.
- 제출방법: 각 구역 반장님께 사진전송
- 작품 전시회는 성당문 열리는날...
- 문의: 성당 사무실 323-221-8874

“예수님의 부활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지난 4월 8일 오전 교황청 사도궁 도서관에서 인터넷 생중계로 수요 일반 알현을 진행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전례 예식을 “위대한 가정 전례”처럼 지낼 것을 신자들에게 권고하셨습니다. 교황님의 좋은 말씀을 우리 성삼성당 신자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주님 부활 대축일에 주임사제 양태현 그레고리오 신부)

\*\*\* 부활 성야 미사 및 부활 대축일 방송 미사 안내 (유튜브 - KCBC US 미주가톨릭 방송)

#### <교황님 말씀>

“집에서 십자가상, 복음서와 함께 성삼일과 부활절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최근 몇 주 동안 걱정하며 지낸 우리에게 하는 많은 질문 중에는 하느님에 대한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고통 앞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갈 때 어디에 계시는가? 왜 빨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느님에 관해 묻는 질문들입니다.

이번 성주간에 우리와 동행하는 예수님의 수난 사화는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사실 그때도 많은 질문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한 다음, 마침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들에게서 해방시켜 주실 것인지 알고 싶어했습니다(루카 24,21 참조). 그들은 칼로 승리를 거두는 강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심과 자비를 바라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메시아가 왔습니다. 처음에 호산나를 외치던 바로 그 군중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마태 27,23)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혼란스럽고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운명이 이것이라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강하시고, 무적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수난 사화를 계속 읽어 나가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백인대장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마르 15,39)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이방인이자 로마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신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들었고,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는 그곳에 하느님이 계시고, (그 하느님이) 참으로 하느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하느님의 참 얼굴은 무엇인가? 보통 우리는 하느님에게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 우리의 정의 의식, 우리의 분노 등을 최대한 투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느님이 그렇지 않으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것과는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느님은 우리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바로 파스카를 통해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어디서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까? 십자가 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느님 얼굴의 특징들을 배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는 하느님의 옥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침묵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보는 게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분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도 책임을 돌리지 않으시며, 모두를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리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아무 말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악을 당신 것으로 취하시며, 우리의 죄를 당신이 짊어지십니다. 이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편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분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복음서를 펼칩시다. 우리 모두 집안에 머물면서, 자가격리를 행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 두 가지를 손에 듭시다. 십자가상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복음서를 펼칩시다. 이는 요즘 성당에 갈 수 없는 우리에게, 말하자면 위대한 가정 전례와 같습니다. 십자가상과 복음서입니다!

복음에서 군중들은 예전대 오천 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이 있는 후에 예수님에게 가서 그분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셨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요한 6,15 참조). 마귀가 예수님의 거룩하신 권위를 드러내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마귀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으십니다(마르 1,24-25 참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해받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이 겸손한 사랑이신 참 하느님을, 과시하고 힘으로 강요하는 거짓 신이나 세상의 신과 혼동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 각자처럼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신성의 힘으로 인간처럼 당신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복음 안에서 언제 장엄하게 선포되었습니까? 백인대장이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고 말했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자 곧바로 그곳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가 잘못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식이 아니라 하느님이 사랑 안에서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분의 본성입니다. 그분은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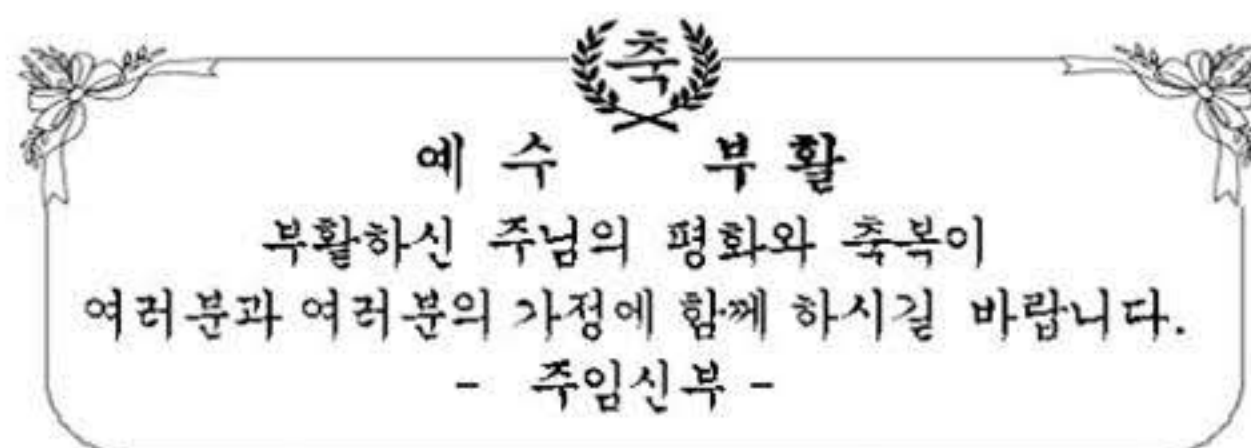
여러분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죽어버린 신과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힘있고 강한 신이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력은 지나가고 사랑이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오직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의 나약함을 감싸주고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그분의 용서를 통해 우리의 죄를 치유합니다. 파스카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은 죽음을 생명으로 건너가게 하고, 우리의 두려움을 신뢰로 바뀌게 하고, 우리의 고뇌를 희망으로 바뀌게 했습니다. 파스카는 하느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돌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느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환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스카 아침에 “두려워하지 마라”(마태 28,5 참조)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악에 관한 고뇌에 찬 질문들이 한 순간에 사라지는 않겠지만, 부활하신 분 안에서, 난파를 피할 수 있는 견고한 기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면서 역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비록 역사가 여전히 악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열린 마음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가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십자가상과 복음서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온 마음을 엽시다. 십자가상과 복음서를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가정 전례입니다. 기도 안에서 예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엽시다. 그분의 시선이 우리 위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깁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생각과 함께 여러분이 성주간과 부활절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복음에서 군중들은 예컨대 오천 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이 있는 후에 예수님에게 가서 그분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셨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요한 6,15 참조). 마커가 예수님의 거룩하신 권위를 드러내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마커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으십니다(마르 1,24-25 참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해받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이 겸손한 사랑이신 참 하느님을, 과시하고 힘으로 강요하는 거짓 신이나 세상의 신과 혼동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 각자처럼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신성의 힘으로 인간처럼 당신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복음 안에서 언제 장엄하게 선포되었습니까? 백인대장이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고 말했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자 곧바로 그곳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가 잘못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식이 아니라 하느님이 사랑 안에서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분의 본성입니다. 그분은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죽어버린 신과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힘있고 강한 신이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력은 지나가고 사랑이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오직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의 나약함을 감싸주고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그분의 용서를 통해 우리의 죄를 치유합니다. 파스카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은 죽음을 생명으로 건너가게 하고, 우리의 두려움을 신뢰로 바뀌게 하고, 우리의 고뇌를 희망으로 바뀌게 했습니다. 파스카는 하느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돌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느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환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스카 아침에 “두려워하지 마라”(마태 28,5 참조)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악에 관한 고뇌에 찬 질문들이 한 순간에 사라지는 않겠지만, 부활하신 분 안에서, 난파를 피할 수 있는 견고한 기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면서 역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비록 역사가 여전히 악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열린 마음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가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십자가상과 복음서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온 마음을 엽시다. 십자가상과 복음서를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가정 전례입니다. 기도 안에서 예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엽시다. 그분의 시선이 우리 위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깁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생각과 함께 여러분이 성주간과 부활절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                                                                                                                                                          |                                                                                                                                                                                                         |                                                                                                                                                                                                            |                                                                                                                                                                                |
|----------------------------------------------------------------------------------------------------------------------------------------------------------|---------------------------------------------------------------------------------------------------------------------------------------------------------------------------------------------------------|------------------------------------------------------------------------------------------------------------------------------------------------------------------------------------------------------------|--------------------------------------------------------------------------------------------------------------------------------------------------------------------------------|
| <b>고려 여행사</b><br>3388 W. 8 <sup>th</sup> St. LA CA 90005<br>한 레지나 / 레오<br>Tel 213-385-6611                                                               | <b>전 명세(패트릭), CPA<br/>RE BROKER</b><br>INDIVIDUAL&CORP TAX,<br>ACCOUNTING SERVICE, ESTATE<br>PANNING, ADVANCED FINANCIAL<br>& RETIREMENT PLANNING<br>전 패트릭&안나 (213)380.6437<br>patrickchyun@hotmail.com | <b>올림픽 타운 꽃집</b><br>Olympic Town Flowers<br>1101 S. Vermont Ave #107<br>(버몬트 + 11가 코너)<br>(323)RED-ROSE (213)480-3102<br>김 미카엘라(예육)                                                                        | <b>백양·쌍방울</b><br>(LA 속옷 전문 매장)<br>한국산유명속옷브라자거들<br>양말·스타킹·잠옷·백일·돌복<br>LA 웨스트민 백화점(9가+ 웨스트민)<br>서 엘리사벳 213-487-7676                                                              |
| <b>Fire Way Fire Protection</b><br><b>소화기 점검해드립니다.</b><br>김항철(요셉) 213-352-3554<br>김 호노리나 213-200-3049<br>EE#25138                                        | <b>건강보험(커버드CA), 메디칼-메디케어,<br/>생명보험(Life), 연금(IRA), 무료상담</b><br>213-249-2127<br>예영해(프란치스코)                                                                                                               | <b>글렌데일 브랜드 꽃집</b><br>1134 E. Chevy Chase Dr<br>Glendale, CA 91205<br>☎ 818-244-1359<br>Web: www.brandflorist.com<br>서 베로니카                                                                                | <b>결혼정보회사 듀오 USA</b><br>한국 며느리, 한국 사위,<br>믿을수 있는 듀오 USA 에서<br>인연을 만드세요<br>세실리아 : 213-383-2525(LA)<br>201-242-0505(NY)                                                          |
| <b>메디케어/오바마케어</b><br><b>생명/건강/사업체/자동차</b><br><b>박 헬레나(에실)</b><br>☎ 213-500-9393                                                                          | <b>이길웅(분도)치과</b><br>Vine Dental Care<br>☎ 323-465-2828<br>954 Vine St. Los Angeles<br>Melrose + Vine                                                                                                    | Meeyoung J. Kim D.D.S<br>Howard J. Yang D.D.S.<br><김 율리아, 양 파비아노><br>437 W. Colorado St. Glendale<br>☎ 818-244-0299<br>일반치과, 치아미식, 교정치과                                                                    | <b>보스톤 치과</b><br>구강호 토마스AQ<br>213-380-2727<br>3663 W. 6th St. #203A.<br>LA 한인타운 6가 와 아드모어<br>LA Medical Center                                                                 |
| <b>윤주익(클라라)</b><br>Executive Manager<br>Law Offices of Eugene Yun<br>부동산, 회사설립, 유언/상속, 교통사고, 형사법<br>213-388-3535/818-433-2891(C)<br>www.eugeneyunlaw.com | <b>대한 장의사</b><br>이 미카엘<br>213-700-1788                                                                                                                                                                  | 한 태 호 변호사 법률 그룹<br><b>KENNETH T. HaaN &amp; associates</b><br>A PROFESSIONAL LAW CORPORATION<br>민사소송/사고, 상해/노동법/이민법<br>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br>Tel (213)639-2900<br>www.haanlaw.com 한 마리노, 클라라 | <b>36년 전통의<br/>한국장의사</b><br>HAN KOOK MORTUARY<br>323-734-5656(LA)<br>562-868-0788(세리토스/놀릭)<br>장례에 관한 모든 절차를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
| <b>불란서 안경검안과</b><br>FRANCE VISION OPTOMETRY<br>시니어 HMO 지정점<br>3104 W. Olympic Bl. LA.<br>☎ 213-487-1001<br>Elizabeth & Dr. Linda Lee<br>(교우 특별 봉사)       | <b>미주 자동차 정비</b><br>MIJU AUTO REPAIR & BODY<br>415 W. Broadway, Glendale<br>(818)247-4400<br>이 크리스티나 & Karl                                                                                             | <b>안진환(Tony), CPA</b><br>안토니오 & 스텔라<br>2140 W. Olympic Bl. #508<br>(213)344-9137/(213)380-5070                                                                                                             | <b>서 승혜 나탈리아</b><br>공인 회계사<br>3450 Wilshire Blvd #302<br>Los Angeles, CA 90010<br>☎ 213-380-8389/213-272-4988<br>e-mail: jeune1004@gmail.com                                   |
| <b>Hankook Plumbing</b><br>가정, 식당, 상가 모든 플러밍 설비 및 수리<br>아무리 작은 일도 성심껏 봉사<br>"막힌 곳은 뚫어드리고 뚫린 곳은 막아드리고"<br><b>홍 벤자민 818-321-4776</b>                       | <b>이동현 토마스 아퀴나스</b><br>내과/노인 의학과<br>213-674-7758<br>2727 W. Olympic Blvd. Suite 309<br>LA, CA 90006 한남체인 건너편<br>이전계원                                                                                    | <b>늘 웃는 치과</b><br>임플란트·교정·보철·일반치과<br>966 S. Western Ave. #207<br>(323)734-3710, (323)734-3720<br>이 요한 DDS, Ph.D                                                                                            | <b>구 본옥 한의원</b><br>사암침(빠른 효과)<br>(8가와 Hoover 코너)<br>213-427-1299                                                                                                               |
| <b>이호제 MD Ho je Lee</b><br>가정 주치의<br>Glendale (818)246-3306<br>K-Town (323)452-0656                                                                      | <b>뉴스타 부동산</b><br>김영재(요한) 213-840-1237<br>Office: 213-385-4989<br>newjohnkim@newstarrealty.com<br>BRE#: 02033433                                                                                        | <b>WESTERN EXPRESS</b><br><b>자동차 종합 정비</b><br>OIL CHANGE·TUNE-UP·BRAKE<br>·CHECK ENGINE·SMOG CHECK<br>258 S. Western Ave. LA 90004<br>(213)365-0333 강안토니오                                                  | <b>금강안경검안과</b><br>GOLD OPTOMETRY<br>L.A. : (213)384-1001<br>(로데오 플라자 몰내)<br>G.G. : (714)530-1001<br>(H 마트 몰내)<br>요셉 & 루시어 김 . M. E. 21가                                        |
| <b>수녀님 참기름</b><br>멕시코 농민 일자리 제공을 위한<br>건강하고 맛있는 참기름<br>주문전화: 213-220-1711<br>kakaotalk ID: puracollective<br>www.puracollective.com                      | <b>태양 여행사</b><br>2707 W. Olympic Blvd. #101<br>LA, CA 90006<br>서울 사무소 02-775-9702<br>김경희(골롬바) 213-252-9700                                                                                              | <b>두드림 종합 보험(주)</b><br>대표: 제임스 양(야고보)<br>생명/은퇴연금/로딩케어/사업체/주택<br>자동차/건강/메디케어플랜<br>☎ 213-388-8055<br>LA 월서 + 세라노                                                                                             |  <b>애틀미</b><br>건강기능식품,<br>영양제, 화장품<br>생활 필수품.<br>조 마리아 818-653-3313<br>고 소피아 818-522-4073 |